

## 경남 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 국어 기출문제<2007.5.26 시행>

1. 다음 내용의 글 중 한자로 바꾼 것으로 틀린 것은?

사법부는 할부판매관련 재판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① 사법 : 詞法    ② 할부 : 割賦    ③ 재판 : 裁判    ④ 기준 : 基準    ⑤ 대책 : 對策

2.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인 것은?

- ① 부슬비    ② 볏음밥    ③ 작은집    ④ 날짐승    ⑤ 고갯길

3. 다음의 글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는?

어찌하여 숲 속과 연못가에서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결찬 인재가 하급 구실아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또한 어렵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거리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비록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科擧)로써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 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조막만 하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고 탄식했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 ① 부화뇌동    ② 아전인수    ③ 우유부단    ④ 자가당착    ⑤ 표리부동

4. 다음의 내용이 틀린 것은?

- ① 굳이[구지] : 구개음화  
② 많다[만타] : 음운의 탈락  
③ 콧날[콘날] : 사잇소리 현상  
④ 히읃[히은] : 음절 끝소리 현상  
⑤ 광한루[광할루] : 자음동화(유음화)

5. 다음 글을 읽고 난 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월 초하루.....이자.....무덤.....토실

- ①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을 경계하고자...

- ②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의문이다.
- ③ 다수의 의견이 어리석음을 명쾌하게 보여주는군...
- ④ 천명을 거스르지 않는 옛 사람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 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재로 해서 교훈을 주는 글이다.

6. 다음 내용의 예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생체모방공학에 대한 글...

- ① 이순신은 거북의 등을 보고...거북선 제조
- ②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은 탄력..낙하산의 재료로 쓰인다.
- ③ 원시시대 사람들은 칼, 화살촉을 동물의 이빨이나 발톱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④ 상어비늘....이용해서 수영복을 만든다.
- ⑤ 연잎은 비가 와도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을....유리창이나 텐트의 소재...

7. 국어순화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노견(路肩) : 갓길
- ② 돈사(豚舍) : 돼지우리
- ③ 나대지 : 공장터
- ④ 보합세(保合勢) : 멈춤세
- ⑤ 고수부지(高水敷地) : 둔치

8. 다음 제시된 글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장끼란 놈 기를 쓴다 아래 고괘 번디디고 위 고괘 당기면서  
버럭버럭 기를 쓰나 살 길이 전혀 없고 털만 쪽쪽 빠지는군

- ① 군 불에 밥 짓기군
- ② 눈가리고 아웅
- ③ 우는 아이 젖 주는 군
- ④ 푸줏간에 든 소 풀이군
- 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 군

9. 아래 글과 유사한 시조...?

나물먹고...물 마시고...도가 없는  
부귀영화는 나에게 뜬 구름과 같다...

- ①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 ②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 하야 프르난 닷 누르나니  
    아마도 변티 아닐산 바회뿐인가 하노라
- ③ 짚 방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  
    아회야 박주산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④ 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데 업다  
    저근듯 벌어다가 머리 우회 불리고자

- 귀 밑의 해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하노라.  
 ⑤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엿는고  
 석양(....)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10. 다음 중 표기가 다른 것은?

- ① 이 자리를 빌어 빌어
- ② 재떨이
- ③ 풍지박산
- ④ 짜집기
- ⑤ 짹짹

11. 아래의 지문을 바르게 고친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라고는 스스로 자원하고 나서...

- ① ‘것이라고는’을 것이라고만으로 바꿔야 한다.
- ② ‘자’와 스스로가 겹치므로 스스로를 없애는 것이 좋겠어.
- ③ 당연히를 오히려로 고치는 것이...
- ④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고쳐야...
- ⑤ ‘나아가서는’을 ‘게다가’로...

12. 표시된 부분과 의미가 일치하는 것은?

옥창에 심근 매화 몇번이나 띄여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단 므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이 상에 올제  
 긴 한숨 디난 눈물 속절 업시 험만 만타

- ①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예어 가는고
- ② 어이 물 오던가 무슨...
- ③ 태산이 평지되고 금강이...
- ④ 산해진미 있다 한들 그맛 어이...
- 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13. 다음 글을 읽고 적절한 설명을 찾으시오.

<대화제시> 네말대로...

- ① 한사람이 설득해서 동요하고 있다.
- ② 관심사가 맞지 않아 초점이 다르다.
- ③ 절충하고..
- ④ 서로 존중하고 있으나 일치를 보지 못한다.
- ⑤ 가치관의 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4. 완곡어법으로 틀린예는?

- ① 돌아가셨다.
- ② 마마가 오셨다.
- ③ 꽃, 산신령, 영감...
- ④ 잔치에서 " 차린것을 없지만 많이 드세요 "
- ⑤ 장난이 심한 아이에게 " 그녀석, 참 활발하군 " 이라고 말한다.

15. 다음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오유란은, 나지막한 소리로 간곡히 아뢰었다. " 관청에 매어 있는 여자로서 장부를 속여 희롱하기를,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고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 하였으니, 어찌 죄 없다고 하느냐? 빨리 처치하고 늦추지 마라." 오유란은 다시 빌면서 말했다.

" 마라웁건대 어사께서는 잠시 문을 열고 한 번만 보아 주신 즉, 소녀가 다만 한 말썽만 드린다면 회초리 아래 귀신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는 원통함이 없겠습니다. " 어사는 일찍부터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라, 그 말을 듣고야 낮익은 얼굴을 한 번 보니 오유란이 몸을 나타내고 살짝 쳐다보고 생긋이 웃으며 말했다. " 산 것을 보고 죽었다고 한 것은, 산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아니한 것을 판단 못함이요,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한 것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귀신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속인 사람이 나뻘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뻘니까?

너무 지나치게 속인 사람은 혹 있다고 할지라도, 속임을 당한 사람으로서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조는 사 줄이 되어 오직 장군의 명령을 들을 따름입니다. 일을 주장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할 것이어늘, 어찌 사 줄을 버히려 하십니까? "

어사 듣기를 마치고 보니, 사정이 또한 없을 수 없고 사실 이 또한 그러하였으므로, 즉시 풀어 놓도록 명령하고, 당상으로 올라오세 하고 한번 웃는 얼굴을 보여주며, 어사 듣기를 마치고 보니, 사정이 또한 없을 수 없고 사실 이 또한 그러하였으므로, 즉시 풀어 놓도록 명령하고, 당상으로 올라오세 하고 한 번 웃는 얼굴을 보여주며...

- ①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음을 질책한다.
- ②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
- ③ 자신보다 상대의 잘못이 큰 것임을 증명
- ④ 상대를 때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16. " .....삶의 모든 현실을 이 측면에서 나오고 또한 거기로 돌아간다. " 에서 돌아간 다와 유사한 의미는?

- ① ....위험하게....사태가 돌아간다.
- ② 너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며 노래를 불러...
- ③ 승리를 상대방의 승리로 돌아갔다.
- ④ 우리는 그날 동심으로 돌아가...
- ⑤ 그 아이는 얼굴 근육 이상으로 입이 돌아갔다.

17.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것은?

- ①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② 총무과의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 ③ 재경이는 폭풍때문에 막차를 놓쳐 (안절부절못했다.)
- ④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⑤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한 이도 반대한 (이 만큼이나) 많았다.

18. 다음의 설명이 틀린 것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 ① 형태소는 모두 9개이다.
- ② 형식 형태소는 5개이다.
- ③ 의존 형태소는 6개이다.
- ④ 실질 형태소는 5개이다.
- ⑤ 자립 형태소는 3개이다.

19. 다음의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한 것은?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잠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꼭 같은 넥타이를 매고 고은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또 내 많지 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코밑수염을 길러보는 탓이고 그리고 어는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 재 생선을 진장에 곳곳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자꾸 들려오는 탓이다.

- ① 일상의 소박함 속에 행복을 느낀다.
- ②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 ③ 이상은 현실 속에 빛을 발한다.
- ④ 시련은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
- ⑤ 진정한 우정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20. 순서 나열 문제

(가) 인간은 주의나 이론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나) 철학자가 말

(다) 확실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동정심을 가지고 거지에게 적선을 하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 며칠전 한 걸인을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마) 그러나 삶의 기본적인 방편도 없는 거지에게 푼돈이라도 적선하는 것이...도움이 될 수도....